

연구 논문

**김정일 체제의 경제적 유산과 북한경제 전망:
거점개발과 반개혁의 이중주**

박희진

**북한이탈주민 연구 동향과 과제:
주체, 방법, 내용**

박정란

북한이탈주민 연구 동향과 과제: 주체, 방법, 내용

박정란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stephan89@hanmail.net

1. 서론

2000년대 들어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이전시기에 비해 급증¹⁾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연구 또한 증가세를 보였다. 연구의 양적 증가는 분야별 정착지원 연구에서부터 심리,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연구 주제 및 영역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2009-2010년 도에는 통일부, 교과부 산하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연구기관이 발족하면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북한이탈주민 연구 추이와 과제를 돌아보는 학술회의가 개최되기도 하면서 그 간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정부 뿐 아니라 민간, 지역사회가 정착지원의 주요 주체로 떠오르면서 연구에서도 이들 주체간에 상호연계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화폐개혁 등 경제상황 변화와 군사 도발, 그리고 백두산 화산폭발을 비롯한 자연재해 가능성,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 내부 상황 변화에 따른 급변사태와 탈북 양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그 간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연구는 우리 사회 내부 안정과 통합뿐 아니라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시험대로서의 의미를 더해가며 연구 규모가 증대되어 왔다. 북한 내부

1)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은 2012년 3월 현재 23,466명으로 2012년 3월까지의 입국 추이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명)

구분	~ '98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3 (잠정)	합계
남	829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579	819	119	7,290
여	118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800	1,918	247	16,176
합계	947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9	2,737	366	23,466
여성비율	12%	46%	56%	63%	67%	69%	75%	78%	78%	77%	76%	70%	67%	69%

출처: 통일부, <2012년 3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입국동향>.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상황 변화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발생 추이와 대응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더욱 커지리라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 연구가 우리사회 내부와 남북한 통합, 북한 변화와 주변국에 이르기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증가세와 다차원적 함의를 고려하면 향후 북한이탈주민 연구 방향 설정의 중요성과 신중함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본 글에서는 최근 5개년 간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우리 사회와 북한 내부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한 연구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동향

본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 정책연구서비스(prism) 외 관련 사이트에서 '탈북,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키워드로 최근 5개년(2007-2011년)의 학술논문, 학술회의 및 세미나, 학위논문,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를 토대로 연구동향을 연구 주제, 방법, 내용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가. 연구 주제

북한이탈주민 연구 주제는 국가기구 및 기관, 민간 부문으로 크게 양분되며, 국가기구 및 기관 부문에서는 정부부처 및 기관, 국회, 지자체, 대책 연구기관,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등이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대학, 대학 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NGO 등이 포함된다.

(1) 국가기구 및 기관

국가기구 및 기관 부문에서 북한이탈주민 연구를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주체는 우선 정부부처로 통일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법무부²⁾ 등이 있다. 이 중 통일부와 교과부는 각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연구체계를 갖추게 된다. 북한이탈주

2) 법무부의 경우 법무실 특수법령과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을 2007년도에 발간한 바 있다.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편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2007.

민 정착지원에 있어 연구를 통한 지원 평가와 방향 제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져가면서 2010년 9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산하에는 북한이탈주민연구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연구지원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연구과제가 동시, 순차적으로 발주되면서 북한이탈주민 연구가 그 어느 해보다 규모에 있어 성장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교과부가 한국교육개발원 산하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고 2010년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탈북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연구 또한 체계화되는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으로는 통일연구원, 노동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교육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KDI 등에서 각 영역별로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³⁾,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지자체 내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가 개소하면서 지역별 정착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직접적 연구주체는 아니나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개별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이주자·북한이탈주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정부부처, 기관 외에도 국회에서의 학술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중심으로 간담회,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연구를 주관한 바 있다. 2007년도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서비스 만족도조사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2) 민간

민간부문의 북한이탈주민 연구는 개별연구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외에 대학, 대학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학문분야별로 보면 북한이탈주민연구의 양적 증가세에 따라 다양한 학문 분야 연구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문학, 문화예술, 교육 교과목별, 생태·환경 차원의 접근도 시도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연구 대학 연구기관으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이 있으며, 민간 연구기관으로는 한반도평화연구원⁴⁾, 코리아정책연

3) 최용환 김을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경기도 정책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9.

4) 한반도평화연구원에서는 자체 연구과제와 한반도평화포럼 개최 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주제로 한 바 있다. 제8회 한반도평화포럼에서는 새터민 정책의 의미와 긴급성/전우택 연세대학교 교수, 새터민 교육의 방향 모색/조영아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새터민 대상 정부지원의 새로운 개념/취업 정착비주거지원/박정란 서울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새터민 주무부서와 하나원에 대한 논의/유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구원, 평화문제연구소, 평화재단 등이 있다. 민간단체 중에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시민연합, 새조위, 북한전략센터, 탈북여성인권연대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도 북한전략센터, 탈북여성인권연대 등 북한이탈주민이 주도하는 단체의 역할이 눈에 띈다.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의 수요자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역할을 모색하는 주체로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에서는 2008년 2월 15일에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탈북자의 역할: 탈북자 정책 현황과 금후 과제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해외탈북자 인권 현황과 수용대책, 국내입국 탈북자의 정착지원, 북한체제변화에 대비한 탈북자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한 바 있었다.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직접 북한이탈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30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각기 지난 2008년 10월~2008년 12월, 2008년 7월~2009년 6월에 걸쳐 진행하여 발표⁵⁾한 바 있다.

〈표 1〉 2006-2009년도 NED 지원 대상 국내 단체

(단위: 달러)

단체명/연도	북한인권시민연합	DailyNK	북한인권정보센터	자유북한방송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열린북한방송	탈북인권여성연대
2006	195,000	75,000	75,000	395,333	333,950	347,167	-
2007	195,000	100,000	75,000	216,200	50,000	242,000	37,000
2008	210,000	130,000	75,000	216,200	35,000	216,000	-
2009	150,000	130,000	80,000	150,000	35,000 75,000	150,000	-
단체명/연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개혁방송	북한전략센터	임진강	백두한라회	NK지식인연대	자유조선방송
2006	-	-	-	-	-	-	-
2007	25,000	-	-	-	-	-	-
2008	-	100,000	19,318	-	-	-	-
2009	-	-	-	75,000	30,000	70,000	150,000

출처: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Annual Report (2006-2009) 내용을 토대로 구성.
(<http://www.ned.org/publications/annual-reports/2009-annual-report/asia/description-of-2009-grants/north-korea>)

국내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과 연구가 확대된 데에는 민주주의진흥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에서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과 일정부분 연관성을 갖는다. 2002년부터 추진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2004년 제108차 미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북한 인권 증진을

5) 박정만, “탈북자 정착지원 현황과 과제 취업지원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북한전략센터 주최 세미나 발표문

위해 미국과 한국 내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는데, 국무부 예산항목과 민주주의진흥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에서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NGO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국내 정부 및 기관의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민간부문의 연구 외에도 미국 NED의 지원으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하며, 연구보고서로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민·관 협력

국가기구 및 기관이 민간부문에 지원 또는 위탁해 연구를 진행하거나 정부, 국회, 민간단체, 기업, 학계 등 정착지원 및 연구 주체간 협력의 중요성 인식이 고조되면서 공동의 대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있어 민관의 다양한 주체 간에 협력사업이 증대하면서 연구에 있어서도 상호 정보 교류와 공동 대응 방안 구축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계와 민간단체, 기업, 정부, 국회 등이 공동 주최 내지 후원 등의 형식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나.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북한이탈주민 연구에 있어서 대상이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동향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성별, 생애주기, 입국시간차, 지역, 세대(1,5세대), 학력 등에 따라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 생애주기별로는 청소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점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입국시간차별로는 입국초기의 정착을 다룬 연구들을 볼 수 있는데, 초기의 적응을 다룬 연구로 강해성(2011)이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초기적응⁶⁾을 주제로 다룬 바 있다. 또한 최영아·이주용·김정규(2009)의 연구⁷⁾에서는 남성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심리적 적응 수준이 다루어졌다. 성별에 따른 연구 동향도 나타나고 있는 바, 앞서 보았던 성별에 따른 초기적응 실태를 다룬 연구 외에도 박순성 외(2010)의 연구에서는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탈북여성이 경험한 인권침해 실태⁸⁾를 조사한 바 있다. 박정란·강동완(2011)⁹⁾은 탈북여

6) 강해성,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초기적응」,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7) 최영아·이주용·김정규, 「남성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심리적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統一 政策 研究』, Vol.18 No.2, 2009.

8) 박순성 외 5인, 「탈북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0.

9) 박정란·강동완, 「탈북여성 결혼의 전지구조와 문화적응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35집 2호, 전북대학교 사회

성의 결혼을 젠더구조와 문화적응에 초점을 두었다. 그 외에 북한이탈주민 세대별 연구도 등장하였는데, 이슬기(2009)는 '1.5세대' 여성에 초점을 두어 정체성 연구¹⁰⁾를 진행하였다. 학력별로는 송윤정(2009)¹¹⁾이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다룬 바 있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에서의 주요 동향은 첫째, 북한이탈주민 연구 초기에는 설문조사를 통한 정착 실태 조사가 중심이 되었던 것에서 질적연구방법, 패널 데이터 구축, 경험 및 현장연구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의 경우도 일회로 그치지 않고 다년간 종단 연구로 진행되는 패널데이터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¹²⁾도 최근 동향으로 주목할만하다. 질적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석·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질적연구방법에서도 심층면담이 주요 연구 방법이 되면서 1:1 내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교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실천 과정을 다룬 경험 연구가 등장하는 것도 최근 추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있어서 표본 규모가 천명 이상으로 대규모화되고 있으며, 데이터 축적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집대성하거나 실태조사 척도 개발도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분석보고서」를 2011년도에 발간한 바 있다.

셋째, 연구 접근방법 및 시각에 있어서 다문화주의, 성인지, 생애사, 권리기반 접근 방법 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 내 이주자 증가로 다문화 시각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접근하거나 북한이탈주민과 이주자 비교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남한 입국 과정과 입국 이후의 삶을 조명하며 정착지원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탈북과정, 남한 입국 이후의 정착과정을 생애사적으로 접근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제 문제들을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파악하려는 시도¹³⁾가

과학연구소, 2011.12.31.; 박정란·강동완, 「탈북여성 연구 동향, 쟁점,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2호, 2011년 겨울호.

10) 이슬기, 「북한 이주 1.5세대 여성들의 정체성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1) 송윤정, 「고학력 새터민이 선택하는 삶의 전략과 그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2) 패널연구로 김병창, 유시은, 「북한이탈주민 패널연구 : 경제·정신보건·신체건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13) 박정란, 「여성 새터민의 직업기대와 진로의사결정과정 연구: 북한에서부터 남한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오양혜, 「탈북자의 고향의식과 그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이화진, 「탈북여성의 북한, 중국,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통해본 인권침해와 정체성 변화과정 : 탈북여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박명숙, 김찬중, 유은정,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탈북 대학생들의 학습자 정체성 유형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0 No.1, 2010; 강일규, 이용길, 김철수, 전연숙,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자각인정자의 직업경로실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박정란, 강동완, 김홍광,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현황 및 연계 방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진행되고 있다.

넷째, 학문 분야의 폭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문학적 접근, 예술, 환경·생태 등의 학문 영역에서 실천지향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문학적 접근으로 박상욱·최늘샘(2011)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¹⁴⁾한 바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소설을 분석한 연구¹⁵⁾가 있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연구에 있어 남한 주민, 이주민 등과의 비교 분석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주제로 건강상태, 정치적 태도 비교 분석¹⁶⁾ 등이 있었다.

다. 연구 내용

(1) 정착실태 및 지원방안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 지은 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현황과 지원방안¹⁷⁾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시작된 이래부터 매년 입국 규모가 연 2-3천 명으로 이전시기보다 대규모화되는 2000년대 들어서까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 온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취업분야와 관련해서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북한이탈주민 취업 현황, 실업요인, 민관 취업지원 현황, 취업지원 한계와 성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최근 정착실태 및 지원방안에서 살펴볼 만한 내용은 첫째, 민간, 지역사회 지원방안 모색에 대한 것이다. 기존의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 민간단체, 종교시설 및 단체 등에서의 지원 내용과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중훈(2010)은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길준규(2009)는 대학 내 그룹홈, 포레협력학습을 통해 탈북대학생의 적응 방안을 연구 한 바 있다. 김선화·윤여상·허영철(2011)은 거주지의 정착지

14) 박상욱·최늘샘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교육요구: 인문학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Vol.14 No.2, 2011.

15)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 『韓國文學論叢』, Vol.51, 2009;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연구 통일시대를 향한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Vol.40, 2009.

16) 이요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 건강상태비교」,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박정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치·태도 비교 연구 : 정치·태도·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7) 경제활동과 관련한 연구로 북한인권정보센터 「2006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취업·실업·소득」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박정환·강동원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개선 방안」,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권 제호(2008); 박상재·김희순 「탈북이주민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職業能力開發研究』, Vol.11 No.2, [2008]; 박정환 「여성 새터민의 자녀 돌봄과 알 실태와 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제28집, 2009; 박상재·김희순·황규성·송민수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변동 및 취업지원제도 평가」, 2011-12-30, 한국노동연구원; 전연숙·강혜영 「탈북여성의 진로정책 자가 연령별, 학력별, 남한거주기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15 No.3, 2010. 등이 있다.

원 방안을 제시¹⁸⁾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이탈, 부적응¹⁹⁾에 초점이 두어졌던 것에서 강점관점으로 성공사례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 내에 자리잡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상쇄시키고 모범 사례를 부각시킬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성공사례로 29사례에 대한 일자리 생애사례 분석한 박정란·강동완·김홍광(2011)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탈북 후 제3국 체류 기간, 남한 입국 이후 경험한 교육, 훈련, 취업 등의 과정을 일자리 생애로 규정짓고 사례분석²⁰⁾을 시도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자조 정착모델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김병욱(2011)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전문상담을 연구한 바 있으며, 전영평·장임숙(2008)은 탈북자의 정책개입을 분석한 바 있다.²¹⁾

넷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체가 민·관 차원에서 확대 되면서 정착지원 주체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중요성²²⁾도 부각되었다. 최근에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가 언론에서 다루어지면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연구²³⁾되기도 했다.

(2) 사회문화

사회문화 분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경험, 가치관, 사회연결망, 정체성, 예술활동 등에 대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늘어나는 연구 주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정체성 등에 대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국가·사회·교육 부문의 정체성으로 분화되고 있다. 국가정체성²⁴⁾, 사회정체성, 교육 현장에서의 학습과 정체성²⁵⁾의

18) 지역사회에서의 정착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김선화, 윤여상, 허영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20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윤혜순·김진희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평생교육 역할에 대한 고찰」,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Vol.13 No.4, 2010; 법제도지원과 관련해 최은석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문제 사례조사 및 법·제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구해우, 「탈북자 정착지원에 관한 법적 대응과 과제」, 『인양 법학』, Vol.32, 2010 등의 연구가 있다.

19)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이탈과 관련해 박윤숙, 「북한이탈 청소년의 이탈행동과 해결방안」, 『교정당론』, Vol.3 No.2, 2009; 황정숙,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부적응과 적응 방안 모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등을 살펴볼 것.

20) 박정란·강동완·김홍광,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현황 및 연계 방안: 일자리생애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21) 김병욱,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 연구」, 『사회과학연구』, Vol.19 No.1, 2011; 전영평·장임숙, 「소수자로서 탈북자의 정책개입에 관한 분석: 정체성, 저항성, 이주확산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Vol.14 No.4, 2008.

22) 사정복,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국 거버넌스 탐색: 취업정책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Vol.22 No.1, 2010.

23) 이창두, 김주찬, 한상철, 신현주,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24) 장선하, 「한국사회의 탈북이주민 국민 만들기: 한국사회의 탈북이주민 국민 만들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오원환,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강진웅,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거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韓國社會學』, Vol.45 No.1, 2011.

25) 오윤호,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정체성과 자본주의적 생태의 비극성」, 『문학과 환경』, Vol.10 No.1, 2011; 조경아, 「탈북이주민의 학습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統一政策 研究』, Vol.19 No.2, 2010; 최대석·조은희, 「탈북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北韓研究學會報』, Vol.14 No.2, 2010; 유은정·박명숙·김찬중,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탈북 대학생들의 학습자 정체성 유형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0 No.1, 2010; 조경아, 「탈북이주민의 학습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統一政策 研究』, Vol.19 No.2, 2010.

문제도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가족, 여성, 청소년 연구 증가 추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 청소년, 가족단위 입국이 증대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탈주민 가족 해체에 대한 관심²⁶⁾이 상대적으로 컸다면 가족단위 입국이 증대하면서 가족 내에서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를 비롯해 자녀돌봄과 일 양립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현숙(2010)은 북한이탈모의 초등학교 자녀 양육 경험을 연구한²⁷⁾ 바 있으며, 박정란(2009)은 북한이탈여성의 자녀돌봄과 일 양립 실태와 지원 방안을 제시²⁸⁾하였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 가족 상담을 위한 모형 개발²⁹⁾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탈북을 주제로 한 소설을 비롯해 문화예술부문의 내용 분석이나,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예술단 활동이 있게 되면서 무용참여도 조사, 예술단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등에 대한 연구³⁰⁾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적응 척도 개발이나 학생문화, 식습관을 비롯해 미술·음악 치료 등 문화예술분야의 주제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교육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에서의 적응 실태조사³¹⁾와 더불어 수학, 세계사, 국어 등 교과목별 교육 실태 및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목별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석사논문³²⁾과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연구결과물들을 통해 도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 현장 연구 외에도 아동교육,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연구³³⁾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2009년 9월에 출범한 이후 교육 연구가 증대한 점도 특징적이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2차년도 사업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6월에 2차년도 사업이 종결되기까지 5개 영역에 걸쳐 25종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산출물은 50여종³⁴⁾이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26) 노차영, 「생존전략으로써의 탈북과 가족해체 경험」, 『인간생활환경연구소 논집』, No.1, 2002.

27) 강현숙, 「북한이탈모의 초등학교생 자녀 양육 경험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28) 박정란, 「여성새터민의 자녀 돌봄과일 실태와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Vol.28, 2009.

29) 북한이탈주민 부부관계와 관련해 임은숙·윤인진, 「북한 이주민의 성 역할 태도와 부부권력의 변화와 지속」, 『가족과 문화』, Vol.20 No.3, 2008; 김진소, 「기독교인 탈북자의 가정생활 :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현아·정성란, 「새터민의 가족상담 모형 개발 새터민의 가족상담 모형 개발」, 『상담학연구』, Vol.9 No.3, 2008.

30) 나경아·박현정, 「탈북여성들의 무용참여요구도 조사연구」, 『舞踊學論叢文集』, Vol.60, 2009; 나경아·한석진, 「한국사회 내 탈북인 예술단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및 가치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Vol.26, 2009.

31) 고상숙·신동희·김애화, 「탈북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포커스 그룹들과 면담을 통한 교육의 실제」, 『수학교육』, Vol.49 No.2, 2010; 왕세영, 「다문화교육 관점에서 본 탈북학생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화 : 교육내용의 범위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박병규, 「새터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고상숙·신동희·김애화, 「탈북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포커스 그룹들과 면담을 통한 교육의 실제」, 『수학교육』, Vol.49 No.2, 2010.

32) 채혜성,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세계사 교과서의 교육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권정현, 「새터민 청소년 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분석과 수업의 실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연보라, 「새터민 청소년의 수학 학습 적응 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창명, 「탈북학생들의 수학학습에서 어려움과 수학을 통한 학습의 이해」,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3) 하지영·백해진·김성길, 「북한이탈주민 담론의 비판적 이해에 기초한 평생교육의 방향」, 『평생교육·HRD연구』, Vol.5 No.3, 2009.

연구사업 내용³⁵⁾을 보면 탈북청소년교육실태조사로 1:1멘토링지도사례, 무연고탈북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 북한교육 및 교원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북한의 교육통계 및 교육기관 현황분석, 북한학교 현황조사, 탈북교원 역량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등이 있었다. 그 외에 남북한 교육 및 탈북청소년 교육과 관련한 보고서가 발행된 바 있다.

(4) 보건의료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의료지원과 관련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온 가운데, 취업부문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외상, 정신건강 연구 외에도 구강건강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과 관련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심리상태와 관련한 연구가 학술회의 뿐 아니라 각종 보고서, 학술지, 학위논문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 실태, 그리고 외상이 남한 입국 이후 정신건강,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³⁶⁾되고 있다. 정신건강, 심리 진단 및 상담·치료 프로그램 구축 연구도 진행된 바 있는데, 심리 및 정신건강 상태 측정도구 개발³⁷⁾과 MMPI(-2) 등 진단 유용성, 심리 프로그램 적용과 효과 검증³⁸⁾ 등에 대한 내용이 연구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석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미술, 음악 등 예술 치료 연구³⁹⁾가 확대되고 있다.

(5) 환경·생태

2010년 말 백두산 화산폭발 임박설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는 물론 남북한간, 한국과 중국

34)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 (검색일: 2012년 1월 26일)

35)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 통합적 교육지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차년도 사업성과, 2011.

36) 윤지혜·오영린. 「탈북청소년의 외상 이후 성장(PTG) 체험연구 -탈북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Vol.17 No.12, [2010]; 김순옥. 「탈북자의 외상경험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11; 김화경·최혜내. 「탈북 여성의 외상 경험과 성격형질이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3 No.1, 2011; 김미자.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경험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Vol.7 No.1, 2010; 이명순. 「북한이탈여성의 외상경험과 우울 : 낙관성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증재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37) 신현균. 「북한이탈주민 심리상태 측정 도구 개발」, 2009-12-21, 통일부.

38) 김화경·전진용. 「탈북 여성에서 MMPI-2의 진단적 유용성 정신과 내원군과 정상 대조군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29 No.2, 2010; 강숙정·이장호. 「MMPI검사결과를 통한 새터민의 심리상담적 접근」, 『상담학연구』, Vol.10 No.1, 2009; 경험논문 : 최현옥·손정탁. 「한국형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K-MBSR)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경험회피 및 수치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16 No.3, 2011.

39) 고은희. 「집단미술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남한 사회 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최혜신. 「새터민 아동의 미술치료 단일 사례 연구 :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화정. 「미술치료가 내적 스트레스 감소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 탈북 아동을 중심으로」,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08; 이소영. 「북한 새터민 여성의 집단음악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도윤지.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등 국제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는데, 박정란·강동완(2011)은 백두산 화산폭발을 계기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탈북의 향방을 주체, 시기, 경로, 경과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백두산 화산폭발로 인한 탈북 현상이 북한 내부는 물론 남한, 한반도 인접국,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은 무엇이며, 탈북의 향방을 예측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지를(북한 내외부 환경, 백두산 화산폭발 강도와 피해 범위 등) 고찰하고 있다.

(6) 분단과 통합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분단사회를 재조명하고 남북한 통합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내 통합 방안 연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구체적인 갈등 해결 프로그램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 내에 왜 통합되지 못하고 갈등하는가라는 시각에서 남한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남북한 출신 간 의식의 상호작용에 까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⁴⁰⁾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주민들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분단 상황을 구조화하면서 통일 미래에 나타날 상황 예측과 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성희(2010)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분단의식을 고찰한 바 있으며, 박영신(2009) 또한 사회통합, 통일 논의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접근⁴¹⁾하고 있다.

3. 연구 과제

가. 연구 주제

북한이탈주민 연구 주체가 다양한 학문분야, 정부 및 민간 주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40) 권수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韓國 政治 研究』, Vol.20 No.2, 2011. 전영평·장임숙, 「소수자로서 탈북자의 정책개입에 관한 분석 정책성 저항성 이슈확산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Vol.14 No.4, 2008; 김금미,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25 No.3, 2011; 윤인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41) 이성희, 「탈북자 문제로 본 분단의식의 대비적 고찰」, 『韓國文學論叢』, Vol.56, 2010; 최승호,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정치정보연구』, Vol.13 No.1, 2010; 박영신 「사회구조, 통일 사회통합-탈북인」 이해의 문제」, 『신화와 실천』, Vol.19 No.2, 2009; 조성돈, 「새터민 심층인터뷰를 통해본 통일과 그 이후」, 『신화와 실천』, Vol.19 No.2, 2009. 김산옥, 「북한이탈주민과의 통합을 위한 평화적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연구, 북한이탈주민과의 통합을 위한 평화적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고무적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 뿐 아니라 미국 NED 지원에 의한 한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교육, 취업 등 정책상 가시적 성과로 드러날 수 있는 분야에 연구가 중복되거나 치중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긍정적 해석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자체 연구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민간 주체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 지원 연구의 경우에도 법·제도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 과정 및 평가 체계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프리즘에 정부 지원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서가 게시되어 있으나 의례적·형식적 절차로 비칠 수 있는 개괄적 평가 내용 공개로 그치는 한계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나. 연구 대상 및 방법

첫째, ‘올드커머(Old Comer)’와 ‘뉴커머(New Comer)’의 경계 파악이다. 즉, 탈북의 요인, 추이 등을 시기별로 파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상황 변화에 따라 나눌 수 있는 남한 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북한에서 이른바 ‘장마당세대’로 불리는 새세대, 북한 내부와 제3국 체류 기간 중 시장경제를 경험한 계층 등 시기와 집단별 성격 차이를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 연구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백두산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탈북은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내부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 발생을 염두에 둔 정착지원 체계 구축 계획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 연구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 인프라가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북한 상황 변화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수요 예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실업요인으로써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사회 간의 인식의 미스매치를 들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직업 구조 내지 노동시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실업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분단구조에서 파생된 남한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물이해 내지는 배제 등이 실업요인화⁴²⁾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접하는 정착지원 주체들의 고착화된 인식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진로를 왜곡하는 한계점이 되기도 한다. 정착지원 관계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42) 북한에서의 인적자본을 남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는 박정환 외(2010)의 사례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의 전공 내지 경력 등을 남한에서 활용, 발전시킬 수 있을때 남한 노동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착지원에 관여하는 다양한 민·관 주체가 기본적 업무 소양으로써 남북한 직업 세계 이해와 이를 토대로 북한에서 형성된 인적자본을 남한에서 어떻게 활용가능한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였다. 북한에서의 전공 내지 경력을 활용하여 남한에서 진로를 개척한 사례들을 보면 북한에서 사법대, 회계, 화학, 도예, 전공자, 기술대 졸업자, 기자, 경리, 군수, 공장 근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식 내지 남·북한사회에 대한 기존 인식들 - '북한에서의 인적자본은 쓸 수 있는 것이 없다'거나 '시장경제 경험이 전무할 것', '남한에서는 돈 버는 것이 최고' 등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생애에 반영되어 때로는 진로를 왜곡, 선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⁴³⁾

둘째, 연구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의 대상일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정착의 주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통일 무대의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인식은 연구 관점에 널리 반영되고 있으면서도 막연한 미래로만 남겨두고 있지는 않은지, 북한이탈주민이 '현재'의 통일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남한 내에서 뿐 아니라 제3국과 북한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역할이 가깝거나 먼 '미래'의 통일 사회와 어떠한 연계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성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증가하면서 한정된 모집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설문응답에 대한 피로 누적과 부정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정부,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 발주되는 연구의 설문·심층면담자료에 한해서라도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 축적·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부처 내지 국책연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발주하는 연구과제의 질적·양적 자료에서 개인 신상 관련 내용을 선별·삭제하는 검수과정을 거친 후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과 여타 이주자에 대한 연구 방법과 관점에 대한 점검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연구 시각에서 다문화 내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켜야 할지를 두고 논의가 일고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통일기반조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제와 내용은 국내 사회 통합 뿐 아니라 남북한 통합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국내의 이주자를 비롯한 다양한 대상을 위한 복지체제와 연동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원체제의 효율성, 사회 통합 면에서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남북한의 통일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대북·통일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정착지원 접근 또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남한 사회 내부 통합을 위한 '보편성'과 더불어 남북한의 통합을 위한 '특수성'도 배제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3) 2010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용역결과의 사례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실업 요인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간의 상호 인식 미스매치에서 기인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다. 심층면담 참여자들이 경험한 미스매치 가운데 마찰적(frictional) 미스매치는 장기 분단과 구인-구직 상호 인지 및 이해 부족, 구조적(structural) 미스매치는 분단 탈북에 의한 인적자원속련도 저하 가능성과 거주 지역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한 노동수요 부족요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부장' 내지 '불신'에 의한 것과 '일거리 없음'에 의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박정란·강동완·김종광,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현황 및 연계 방안: 일자리 생애사태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12.

다. 연구 내용

첫째, ‘정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과 논의 확산의 필요성이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 다뤄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은 경제적 측면에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고 실태조사 등이 진행된 측면이 있다. 1차적 당면 과제로써의 경제 문제 해결과 더불어 남북한 사람의 ‘행복 공동체’ 지향 등 ‘정착’에 대한 개념 설정과 관련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연구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내에서도 취약계층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유형 파악과 이들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늘어나면서 북한이탈주민 내에서도 북한에서 획득한 인적자원, 당면 생애과제 등의 차이에 따라 남한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정착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크게 증대할 경우에는 지원의 효율성 면에서도 어느 집단에 가중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성공 사례는 발굴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환기함과 더불어 장기간 취약계층화 될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취약계층화 구조와 유형,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의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내에서도 경제사회적 계층 분화 진단과 지원 방안 모색이 더불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세대, 가족연구와 관련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본격화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탈북 1.5세대, 2~3세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탈북 1세대와 어떠한 의식, 생활 양식 등의 경계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족 연구에서 현재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3국 출신 부(모)-북한 출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보고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자녀의 경우 언어생활면에서나 교육 등에서 북한출신 부모 가정과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요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인구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 생애주기, 성인지적 접근이 나타나면서, 성별, 연령대 등에 따라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노인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극소수의 석사학위 논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북한이탈주민 내에서도 경제활동을 위해 가족 거주지 분산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사회 내에서 인구 노령화와 노인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커져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 노인 인구에 대한 파악과 실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입국 10년 후 삶' 조명의 필요성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주요 동향 중 하나는 입국 이후 시차에 따라 나타나는 정착 경로와 상황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입국 초기, 5년 내외 경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패널 데이터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추적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크게 증가한 2000년대 초기에 입국해 이제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남한 입국 후 10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과 실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남한에 입국해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쌓은 취업 및 학교진학, 가족·사회 생활 경험 등을 집대성해 유형화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민·관 차원의 정착지원 담당 기관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선도, 모범 사례의 발굴과 확산 노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일탈,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등이었다. 이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모범, 내지 성공사례와 그 과정에 대한 분석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과부, 통일부 차원에서 청소년, 성인 등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언론에서도 조명되고 있으나 연구의 주요 주제로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교육, 취업 등에서 선도할 수 있는 분야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주민이 각기 분단구조에 '갇힌' 상황이라면 북한이탈주민은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는 인식의 전환이 반영된 연구 틀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북한정보 활동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단체⁴⁴⁾를 통한 정보활동의 의의와 한계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단체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자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북한이탈주민단체 활동이 취업을 위한 제3섹터로서의 역할도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해 경력 부재 내지 불인정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단체 활동이 경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단체 내 대인관계가 다음 단계의 취업을 위한 사회적자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일정부분 경력개발을 위한 직능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이 선도할 수 있는 특화가 가능한 교육, 취업 분야에 대한 발굴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남북한 사람의 양방향적 교호작용과 일상생활에서의 평화 확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다. 문화적응과정은 일방적 과정이 아니라 양방향 과정으로 주류문화는 비주류문화

44) 북한이탈주민 연합조직에 있어서 2007년 북한민주화위원회 결성, 2008년에는 '탈북민단체총연합' 등이 결성된 바 있다.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주류문화 집단에 속한 사람들도 비주류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들 간의 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 현장 분석으로 통일 문화 확산의 궤적을 유추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평화 포착 및 확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탈북과 통일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즉, 탈북을 남북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교류의 장으로서 조명해 보는 것이다. 탈북이라는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제3국과 남한을 연계하는 제분야의 연결망 확산과 교류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뿐 아니라 탈북과정에서 경유하는 국가들을 아우르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과 남북한 통합 연구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이 행위 주체가 되는 관점에서 남북한의 통합이 이루어져 가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우리 사회 내에 구조화된 사회적 배제와 고립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떻게 가해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고립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배제는 과거 식민지 경험, 분단과 전쟁, 경제발전 과정, IMF 시기를 지나면서 구조조정과 경제사회적 양극화 등에서 파생된 측면이 있다. 서구적 백인중심의 인종주의도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저항적 민족주의, 그리고 분단과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으로 나가는 데에 있어 민족주의를 표방한 국가주의 강화, 이 것은 한국사회의 배타성을 구성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분단의 경험은 지리적으로 보다 폐쇄성을 형성할 수 있었고, 체제 대결과 경쟁은 남북한 상호 체제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공포, 경계심을 키우기도 했다. 우리 사회 내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의 틀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달리 적용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사회적 고립도 논의되어야 한다. 북한 또한 남한과의 체제 경쟁, 대결로 남한 체제는 물론 남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질감이 내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남한에 입국해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하려는 인식이 작용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를 거부하고 상당기간 고립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그들 스스로로부터 연유했는지, 남한 사회 내부가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양자가 어떻게 교호작용 하는 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 내에 과연 어떠한 계층, 집단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거부와 배제의 인식을 보이고 있는지, 향후 남북관계, 북한, 남한 내부 상황 변화에 따라 어떠한 집단 내에서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제가 확대, 강화 될 것인가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 이는 통일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인식이 다양한 계층,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견해차가 남한주민들의 성별, 교육, 직업, 소득, 지역 등을 망라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저학력,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당사자들이 남북한 사회 통합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위기의식과 반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성별,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에 따라 폭넓은 대상별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성원에 대한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본다.⁴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은 성별, 교육 수준, 직군 등 다양한 이해집단 내지 계층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역으로 북한이탈주민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바, 이를 고려한 통일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4. 결론

본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연구 동향과 과제를 연구 주제, 방법,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동향에서 연구주제는 국가기관 및 기관, 민간부문으로 크게 양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최근 북한이탈주민 연구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정리될 수 있었다. 연구대상 및 방법의 동향은 성별, 생애주기, 입국시간차, 지역, 세대(1.5세대), 학력 등에 따라 연구대상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 방법에서 질적연구방법, 패널 데이터 구축, 경험 및 현장연구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였다. 설문조사에서도 대규모 표본 조사 실시, 데이터 축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접근방법에 있어서 다문화주의, 성인지, 생애사, 권리기반 접근 등이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학문 분야 폭의 확장, 집단간 비교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연구 내용의 동향은 정착실태 및

4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0년도 통일인식조사 결과를 상세한 응답률 분포 단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지 않으며, 동네 이웃, 직장 동료' 로서는 꺼려지지 않으나,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 로서는 꺼려진다. 북한이탈주민 수용은 '선택적' 으로 해야 하되 아직까지 취업에 있어 경쟁자는 아니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기여하며, 조차내 동일한 경쟁을 해야 하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의 경계 는 국민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약화되기도 더욱 강화되기도 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선호 내지 지원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집단은 성별로 보면 남성이며,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 가구소득은 400만원 이상 가구, 정치적 상황으로는 진보 성향을 지닌 집단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고 지원에 부정적인 집단은 여성, 중졸 이하, 200~299만원 소득 가구, 농수축산업 종사자, 영남·강원권 거주자, 보수적 이념 성향을 지닌 응답자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박명규·김병로·강원택·이상신·박정란·정은미, '2010 통일인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 12.

지원방안, 사회문화, 교육, 보건의료, 환경·생태, 분단과 통합 등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주제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는 바, 연구 주체에 있어서 정부 지원 내지 주관 연구가 지니는 한계 극복, 연구 대상 및 방법에 있어서 시기별 탈북 양상 및 성격 파악, 정착지원 주체로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전환, 연구자료 축적·공유 커뮤니티 구축, 다문화관점의 연구시각의 정리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연구 내용에서의 과제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개념의 포괄적 재정립, 북한이탈주민 내에서도 취약계층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집단 파악과 대응, 탈북 1.5, 2세대 연구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 가족 내에서도 제3국 출신 배우자 가족 구성과 자녀 문제, 노인 연구의 필요성 등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입국 10년 후의 삶에 대한 조명, 현재 북한이탈주민과 이뤄지는 남북한 통합·평화의 현장 연구, 탈북의 남북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교류의 장으로서의 조명, 우리 사회 내 구조화된 배제의 틀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되는 과정의 보편성과 특수성 등에 대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연구가 지니는 성격이 국내 뿐 아니라 북한, 남북관계, 국제정세를 담아내야 하기에 지금까지의 연구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 설정을 위해 더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연구에 다학제적 참여가 이루어져 연구 주제와 내용의 분화와 확장을 보여온 것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조각들로 전체 그림을 묶어낼 수 있는 포괄적 역량도 요구된다 하겠다. 모쪼록 본 글이 지금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연구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종합해 그려내는 데에 기초자료로써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